

학부번역수업에서 학생과의 소통: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의 실현을 위한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의 분석을 중심으로*

남 원 준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의 중요성
- III.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통한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
- IV.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활용한 학생과의 소통 사례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에 관한 본 연구는, 우선, 학부에서의 번역교육 목적에 관해 음미해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은 번역 결과가 아닌 번역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의 수업 도입에 관해 기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에서의 번역교육은 오랫동안 학생들이 생산하는 번역 결과물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과 현재 자신의 수준 간의 간극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의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번역하는 과정에 대해 교수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주는 효과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가 번역과제만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학생프로필을 작성하고, 해당 번역과제에 관해 번역브리프(의뢰자, 주독자층, 목적, 번역물 텍스트 타입 등 번역에 관한 상황 설정, IV장 참조)를 수립한 후에 번역과제를 수행하며, 번역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에 관해 각주, 메모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기술하는 번역저널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생이 보다 다각도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번역과제만을 통해 소통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번역과정에 보다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부에서의 번역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해 알아보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번역능력 함양을 위한 번역과정 중심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후, 번역교육에서의 번역저널이 갖는 효과에 관해 음미해보고, 마지막으로 번역저널을 활용한 학생과의 소통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의 중요성

하우스(House, 7-8)는 과거의 ‘전통적인’ 번역교육을 이렇게 묘사한다(켈리(Kelly) 97에서 재인용).

교수자는 그 선정기준이 모호한 원천 텍스트(아마도 자신이 우연히 접한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학생들이 번역하게 한다. 텍스트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교수자는 마치 학생들이 그 ‘함정’에 빠져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한 후에

열리는 그 다음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구두로 또는 문서로 학생들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를 한 문장씩 열거하면서 수업한다.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가고,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생들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평가하고, 최종의 '정답' 번역을 제시한다. 이러한 번역 교육의 과정을 겪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번역교육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많은 학부 및 석사과정 번역교육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교수자는 특정 분야에서 다년간의 풍부한 번역실무 경험을 쌓아왔고, 어디까지나 교수자의 취향 또는 선호도에 따라 텍스트를 선정한 후에 학생들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번역을 수행한다. 그리고 제출된 번역과제에 대해 '번역결과(translation product)'만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학생들이 범한 '오류'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받는다. '번역결과', 즉, 학생들이 제출한 목표 텍스트(TT: target text)만이 교수자-학생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번역교육은 전문 번역가의 '번역결과'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곳까지 어떻게든 도달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 번역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번역가가 생산한 '번역결과'만을 두고 학생들이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번역교육의 목적은,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번역능력(translator competence)'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상적으로 그려놓은 전문 번역가가 갖춘 '번역능력'에는 수많은 하위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아직까지는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를 않는다. 예컨대, 이향(178-80)은 번역능력에 대한 초기의 논의를 기술하면서, 뉴마크(Newmark, 85)는 번역능력과 외국어능력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캠벨(Campbell, 4)은 번역가가 '완벽한 이중언어구사자'만이 아닌 "역할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번역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번역가 중심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함을 강조"(179)하는 등의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번역능력에 대한 논의의 특징으로 "번역능력의 '정의'가 아닌 '정의들'이 존재한다"(180)는 점과 "번역능력을 정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역능력을 구성하는 구체적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

다”(ibid.)는 점을 기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능력 관련 논의는 “하나의 정의를 제시하기보다는 번역능력의 ‘정의들’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183)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번역능력과 관련해서 번역학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연구자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PACTE(Procés d’Adquisició de la Competència Traductora i Avaliació, 번역 및 평가능력 습득과정 연구단)이다(<http://grupsderecerca.uab.cat/pacte/>). 13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PACTE는 번역능력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하위능력까지 규명한 후 이에 관해 경험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번역행위에 관계된 2개 언어와 관련한 능력을, 언어외적능력(extra-linguistic competence)은 번역행위가 논하는 주제분야와 관련한 지식(전문용어, 특정 용어의 개념 등 주제 관련 제반 사항) 및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 번역가가 경주하는 조사능력을, 심리생리학적능력(psycho-physiological competence)은 텍스트 차원에서 고민되는 부분을 처리하면서 또는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부담을 극복하는 능력을, 전문도구사용능력(professional-instrumental competence)은 번역메모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트라도스(Trados) 등 전자파일을 다루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전이능력(transfer competence)은 이러한 네 가지의 하위능력 간에 전이 과정을 관장하는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모든 번역과정을 관장하는 전략적 판단을 수행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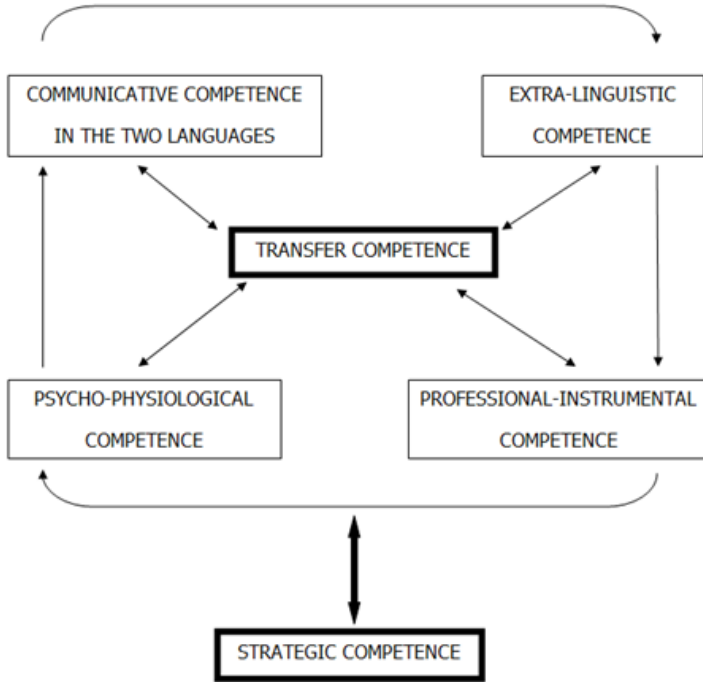


그림 1. 번역능력의 하위능력(sub-competence) (오로츠코(Orozco) 200).

PACTE가 제시한 번역능력이 옳든 그르든 간에 번역학계의 관심을 번역결과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전문 번역가가 갖춰야할 번역능력을 그것도 그 하위능력까지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번역결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번역교육에 ‘인간’으로서의 번역가가 갖춰야할 능력을 제시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번역교육이 과거에는 전문 번역가가 생산한 번역결과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여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는 번역결과를 생산해야 한다는 접근이었다면, PACTE는 ‘인간’으로서의 학생들이 앞으로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번역능력의 하위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번역교육은,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생산하는 '번역결과'에만 일방적으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와 같은 번역능력을 단계별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르파도-알빌(Hurtado-Albir, 173-79)은 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수립할 때에도 번역능력의 하위능력별로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교과목을 배정하고, 매 수업에서는 하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업(task)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머피(Murphy, 243-46), 또한, 번역능력의 하위능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감수(editing)'를 번역교육의 한 교과목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실제 학생들과 함께 코퍼스를 중심으로 감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전문 편집인이 감수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왜 전문 편집인이 그렇게 교정하였는지를 유추해보는 등의 수업에 관해 소개한다. 곤잘레스-데이비스(González-Davies, 73), 역시, 번역교육은 '번역결과'가 아닌 '번역과정'에 그 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업 중심으로 교과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렇다고 번역학계에서 '번역결과'를 전적으로 간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의 번역교육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려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올란도(Orlando, 300-1)는 '번역결과'뿐만 아니라 '번역과정'까지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교수법에 관해 제안하면서 수업 진행과 평가까지도 '번역결과'와 '번역과정'을 모두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해당 선행연구들에 관한 설명은 남원준(forthcoming)을 참고하라.).

이처럼, '번역결과'가 아닌 '번역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함이 크다. 다시 말해, 어떤 번역 전공 학과의 교과과정을 번역능력에 따라 수립하였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년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부 학생은 특정 학기 또는 4년간의 교육만으로 번역가가 갖춰야 할 번역능력을 모두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은 수강 수업을 통해 번역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해당 번역능력 하위능력을 함양한 후에 지속적으로 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번역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 이내에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자기주도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을 통해 번역과정에 중심을 두어 번역능력을 함양하고 졸업 이후에는 계속해서 번역능력을 개발해나

가는 하나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남원준 (Nam) 279).

III.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통한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번역교육은 ‘번역결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 그런데 번역능력 함양을 번역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동시에, 학부생들은 이러한 번역능력을 4년간의 재학기간 동안에 모두 함양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남원준 forthcoming), 번역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번역 선택을 하였는지를 교수자와 학생들이 원활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번역결과’가 아닌 ‘번역과정’에 번역교육의 방점을 찍어야 하고,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프로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기존 영어공부 경험, 번역경험, 국외경험, 진로 등), 부과 받은 번역과제가 어떤 상황에서 번역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설정하는 번역브리프를 작성함으로써 번역 상황의 틀을 제시하여 이후 개별 번역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판단준거로 삼게하며(IV장 참조), 나아가 번역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의 사고의 흐름을 기술하여 학생들 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번역결과물을 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본 장에서는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 번역저널(translation journal)의 역할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를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번역결과 중심(product-based): 전문 번역가가 생산하는 목표 텍스트 수준까지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의 모델)
- 번역과정 중심(process-based): 전문 번역가의 번역능력을 하위능력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하나씩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1) 과업중심 교육(TBT: task-based teaching)
- (2) 자기주도 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
- (3) 번역저널의 도입

먼저 과업중심 번역교육을 살펴보면, 리(Li, 2-7)는 번역가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 사회에서 번역가 이외의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사회화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교육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믿음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교수자 중심 교육(teacher-centered teaching)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학습(learner-centered learning)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번역교육에서 볼 수 있었던 3P 모델[교수자가 번역과제 부과(present), 함께 번역연습(practice), 학생들이 번역생산(produce)]에서 벗어나 PACTE의 번역능력의 하위능력별로 과업(task)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한다(4-5). 이러한 과업중심 교육은, 교수자가 과업에 관해 설명하는 사전 과업(pre-task), 학생들이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task), 학생들이 과업 수행 결과를 알리는 보고(reporting), 교수자가 학생들의 과업 결과를 살펴보는 분석(analysis), 교수자의 피드백에 따라 학생들이 과업 결과를 개선하는 교정(revision), 전체 과업 주기(cycle)에 관해 교수자와 학생들이 함께 숙고해보는 고찰(reflection) 등의 6단계로 구성된다(8-11).

자기주도 학습의 경우, 번역능력의 함양을 번역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와 동일하나, 모든 학생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을 경계하여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도권을 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쨥(Zhong) 204-6). 쨥(Zhong)은 본래 영어교육학에서 많이 연구되어온 자기주

도 학습을 원용하면서(203),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수립한 진로에 맞추어 하나의 일련된 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관해 교수자와 학생 간의 학습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학습을 진행한 과정에 관해 기술한다(208-11). 예컨대,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전문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경찰관이 되어 영어 관련 업무를 맡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녀의 그러한 진로설계에 따라 관련 미디어 기사 읽기, 일기를 외국어로 쓰기, 비즈니스 외국어 학습, 외국어로의 번역 학습 등 그녀에게만 맞는 개인의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고, 진행되는 중간에 정기적으로 교수자와 만나 진도에 관해 상의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번역과제를 평가할 때도 교수는 공통 평가항목 이외에 해당 개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개별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주었다(212-6).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을 위한 위와 같은 과업중심 번역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생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번역을 수행하면서 학생이 겪은 어려움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번역저널이다. 쉬이(Shih, 309-11)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일환으로 이론 중심의 학부 번역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에 관해 고찰하면서 작성하는 저널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보다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또한, 저널 작성을 통해 어쩌면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다가왔던 번역학 이론과 실무 간의 상관관계를 학생들이 찾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번역저널을 보다 체계적으로 번역교육에 접목시킨 예가 웨이(Way, 93-100)이다. 그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진척도를 평가하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아킬레스건(Achilles’ Heel)’을 작성하도록 했다(94). 학생들은 번역능력의 하위능력별로, 예컨대, 문화능력, 관련 주제지식 능력, 전문도구적 능력, 심리생리학적 능력 등에 따라 별도의 저널을 작성하여 자신이 겪은 어려움 또는 개선할 점을 좌측에,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우측에 작성한 후 교수자와 소통하였다(96-9). 마찬가지로 올란도(Orlando), 또한, 번역저널을 번역교육에 도입하였는데, 다만 이를 번역자의 통합 다이어리(ITD: integrated translator’s

diary)라고 명명하였고 번역결과와 번역과정을 동시에 평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보인다(304-5). 그는 번역결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행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공통평가항목으로 원천 텍스트 이해, 번역의 정확도, 생략 여부, 전문용어 선택, 문법 오류, 철자 오류, 편집 오류, 목표 독자층의 수용성, 가독성(readability), 번역브리프에의 충실성(번역의 기능, 완성도, 스타일, 장르 특성 반영 여부 등) 등을 평가하는 대신, 번역자의 통합 다이아리를 토대로 학생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 번역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전략의 선택, 감수 및 편집 능력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편입시켰다(302-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교육에 있어 ‘번역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여기에만 지나치게 주목한 면이 크다. 따라서 번역학계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번역과정’에 주목하고 번역과정에 있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교수자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번역저널을 제시한다. 물론,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더불어 가상학습환경(VLE: virtual learning environment)에서 이메일, 음성 채팅, 온라인 토론 포럼, 이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갈란-마냐스와 우르따도-알빌(Galán-Mañas & Hurtado-Albir) 207). 그러나 학부생들이 4년간의 재학기간 중에 요구되는 번역능력을 모두 함양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번역능력 하위능력별로 교과과정을 수립한 후 개별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사고하는 바와 겪는 어려움 등에 관해 교수자와 학생이 원활히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 수강 이후 또는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번역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나가려면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만큼 효과적인 소통 채널이 없다고 믿는다(이는 통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통역저널의 수업 활용에 관해서는 남원준(forthcoming)을 참조하라.).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생이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V.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지널을 활용한 학생과의 소통 사례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번역과정 중심 번역교육을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부 수업에 적용해본 경험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당해 수업은 ‘통번역학개론’으로 학부에 처음 입학한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수업에서는 통역과 번역의 기초를 모두 교육하고 있으며,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과업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1주일간 1쪽 분량의 텍스트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 과제를 제출할 때 동시에 학생 프로필(자신의 언어 학습 경험, 향후 진로 등)과 자신이 설정한 번역의 상황을 함께 제시한다.

번역의 상황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렇다. 노르드(Nord, 39)는 과거의 등가(equivalence) 기반 이론에서 텍스트 차원에서의 등가가 아닌 번역문인 목표 텍스트가 목표 문화에서 수행할 기능(function)이라는 차원에서 등가를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그러나 동시에 원천 텍스트의 내용을 모두 충실히 담고 있어야 번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목표 텍스트가 수행할 ‘목적’만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보는 기존의 스키포스 이론(skopos theory)은 원천 텍스트에의 충실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번역에 있어서의 등가는 충실성(loyalty)과 기능성(functionality)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번역에서의 스키포스가 무엇이고 번역 행위가 일어나는 텍스트의 상황(text-in-situation)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41). 이러한 텍스트의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이다. 번역브리프란 “번역사가 번역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자로부터 받는 명시적, 암시적 지시사항 일체를 말한다.”(정연일 176). 정연일(177)은 번역브리프에서 하비(Harvey)의 모델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요소를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보고한다.

- 의뢰자(Instigator) : 번역과업을 발주하는 개인(또는 회사, 번역회사). ‘의뢰자’는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세부사항을 번역사에게 명시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 주 독자층(Primary Readership) : 이것이 항상 ‘의뢰자’와 일치하거나 ‘의뢰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연구자가 자신의 부서장이 읽어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지에 수록된 논문의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그가 미팅 참가자들에게 회람시키기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주 독자층’은 각각 부서장과 미팅 참가자들이 된다.
- 목적(Purpose) : 이것은 스크포스와 같다. 목적은 가변적이다. 예컨대, 지시적 기능의 ST(예를 들어, 사용설명서)가 토의용 문건으로 쓰이기 위하여, 또는, 광고·판촉 기능을 가진 독창성 높은 ST 문건이 지시적 기능의 TT를 생산하기 위해 번역 의뢰되는 경우가 있다.
- 번역물 텍스트타입(Target Text-type) : 이것도 ST 텍스트타입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연속간행물 형태의 산문 에세이 ST가 사내 열람을 위해 초고(草稿) 수준의 항목별 요약문으로 번역 의뢰될 수 있다.

(출처: 정연일 177)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번역과제를 수행할 때 그러한 텍스트의 번역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텍스트 상황을 번역브리프의 형태로 스스로 설정해보고, 그러한 텍스트 상황에서 모든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를 해결해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번역문제에 당면했을 때 고려한 점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번역저널을 함께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번역결과인 목표 텍스트만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는 과거의 번역교육 방식이 아닌, 학생 프로파일, 번역브리프(텍스트 상황), 번역저널의 세 가지 요소를 목표 텍스트와 함께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진행한 번역행위의 ‘번역과정’을 교수자가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에 맞추어 보다 맞춤형의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통역수업에의 적용에 관해서는 남원준(forthcoming)을 보라.).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우선, 1번 학생은 국외경험과 번역경험이 없는 학생

으로 앞으로 보건 또는 호텔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전형적인 1학년 학생의 프로필을 갖고 있다. 1번 학생의 번역브리프는 대학교 동아리 구성원들이 의뢰인, 캠페인에 쓰일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번역의 목적, 정보 전달이 텍스트타입, 일반인이 주요 독자층이었다.

- 원문: One might feel good because of a good night's sleep, but the progress of skin cancer has much more to do with **measurements made by a doctor**. Yet it is hard not to pay attention to how one feels in thinking about one's future.
- 학생번역: 어떤 사람은 숙면을 취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암의 진전은 **의사가 시행하고 있는 치료방법**과 훨씬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번역저널: measurement는 치수, 측량, 측정 등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의사가 주체인 것으로 보아 치료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 번역의 경우, 1번 학생은 ‘measurements’의 사전적 정의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의사가 측정’하는 것은 ‘치료’일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이에 관해 번역저널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교수자는 해당 영어 단어의 쓰임과 의사의 진단, 처방, 치료 등에 관해 맞추어 설명할 수 있었다.

- 학생번역: 어떤 환자는 밤에 꿀잠을 잔 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분에 상관없이 암의 진행은 **의사가 측정하는 진단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 번역저널: 환자의 기분과 상관없이 의사의 결정이 더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made를 측정 measurements를 진단으로 의역하였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번역한 2번 학생은 ‘measurements’의 사전적 정의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가 ‘진단’을 잘 찾아내었지만, ‘의사가 측정하는 진단’으로 번역함으로써 아직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국어에서의 호응과 관용표현에 관해 설명을 집중할 수 있었다.

3번 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13년간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국제학교에서 수학하였다고 밝혔다. 아래 목표 텍스트의 의뢰인은 치과 전문가이고, 번역 목적은 당분을 일정 시간 이상 섭취할 경우에 충치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며, 텍스트타입은 정보 텍스트이고, 목표 독자층은 아이를 가진 부모로 설정하였다.

- 원문: Mothers are always telling their children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or candy because they will get cavities. **Is this true?** Actually, it isn't.
- 학생번역: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충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 번역의 경우, 원천 텍스트에서는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충치가 생긴다.’는 부분인데, 목표 텍스트에서는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어순대로 작성하다보니 ‘이게’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어버렸다. 따라서 명제의 배열 순서에 따른 지칭 표현의 적절한 선택 또는 명제의 배열 순서를 고려한 번역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원문: If you keep reintroducing sugar to your mouth **on an hourly basis**, you increase your chances of decay! SO if you pop a hard candy in your mouth at every break, or sip your sugary soda all day long instead of at one sitting, **you could be in trouble**.
- 학생번역: 만약 한 시간 마다 계속 당분을 섭취하면 충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한번에 먹는 것보다 쉬는 시간 마다 사탕을 먹거나 하루 종일 탄산음료를 마신다면, **현재 충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번역저널: If this part is translated literally, it will be very out of the blue so I took the meaning of this part, which is “you could have cavity” and translated the meaning of this sentence in Korean.

3번 학생은 말레이시아 거주기간이 말해주듯 영어로 번역저널을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밝혔다. 원천 텍스트에서의 ‘당신은 문제에 놓일 수 있다 (you could be in trouble)’를 문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은 잘 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에 비해 강도가 매우 강해졌다. 즉, 원천 텍스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강도였다면, 학생번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현재 충치가 있을 수도 있다.’로 강도가 강해졌다. 따라서 문자 안에 담긴 내포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끌어낼 때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4번 학생은 특이하게도 취미로 <How I Met Your Mother>라는 미국 시트콤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자막 번역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국외경험은 없고, 어릴 적부터 영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어쩌면 가장 특기할 만한 번역브리프를 내놓은 이 학생은, 잡지 편집자를 의뢰인으로, 구독자의 흥미 유발 및 정보 전달을 번역의 목적으로, 거부감 없이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의학 칼럼을 텍스트타입으로, 주부 구독자를 목표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 학생번역: **1) 그러므로 그 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당분이 입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충치가 생길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쉬는 시간마다 사탕을 입에 물고 있거나 달디단 음료수를 한입에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훌쩍 거리는 당신, **2) 당신의 이는 안녕하십니까?**
- 번역저널: 1) 처음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가 떠올랐지만 문맥상 ‘충치가 만 들어지기 좋은 산성도가 유지되는 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번역저널: 2) 처음에 비속어만 떠올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곤경에 처하다’라는 사전적 표현을 빌리자니 느낌도 안 살고 우리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떠오른 표현이었습니다. 찬찬히 살펴 보니 비슷한 뉘앙스도 전달되면서 캐치프레이즈의 느낌도 있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번 학생은, 위 3번 학생과 동일한 부분의 번역에서 자신이 작성한 번역브리프에 맞추어 번역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on an hourly basis)’라는 단순한 표현에도 그 뉘앙스를 담아내고 강조하기 위해 ‘한 시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로 옮겼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문자 그대로 옮긴 ‘you could be in trouble’, 역시, 잡지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치프레이즈 식으로 번역했다.

- 원문: Sugar and cavity
- 학생번역: 단 것과 충치 사이의 오해와 진실
- 번역저널: 이런 류의 글에 자주 쓰이는 제목이고, 내용도 들어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목의 번역에서도, 4번 학생은 주부들이 주로 구독하는 한 잡지를 설정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의학 칼럼을 텍스트타입으로 설정한 것에 맞추어 본래는 매우 짧은 ‘당분과 충치’라는 제목을 ‘단 것과 충치 사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흥미를 유발하는, 잡지 기사 제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로 옮겼다. 이는 번역브리프 설정이 얼마나 학생에게 다양한 번역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5번 학생은 8세부터 영어 학습을 해왔으나 국외경험은 없으며, 언어와 관련된 진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단 것과 충치 간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는 정보 텍스트를 텍스트타입으로, 선생님이 의뢰인으로, 정보 전달을 번역의 목적으로, 보건 관련 수업의 수강생을 독자로 설정하였다.

- 원문: Sugar is broken down by the bacteria that cause decay, and the byproduct of the bacteria is an acidic environment that **promotes enamel**

(tooth) breakdown. The pH of the mouth is taken to an acidic level that causes decay. The pH usually stays at its level for about an hour. During this hour, teeth are more **susceptible to cavities**. Afterward, saliva, other foods or water help to bring the pH back to normal, neutralizing the acidic environment.

- 학생번역: 설탕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부산물은 치아의 에나멜을 없애는 산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입 속의 pH농도는 **1) 충치를 유발하는 산성 농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pH농도는 보통 한 시간 정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유지되는 한 시간 동안 이는 **2) 충치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 후에 침이나 다른 음식들 또는 물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며 입 속의 pH농도를 정상시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 번역저널: 1) Promote을 ~한 환경을 조성하여 부추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번역저널: 2) 직역한다면 충치에 민감한 이지만, 민감하다기 보다는 취약하다는 것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 번역브리프를 고려했을 때, 당분이 충치를 유발하는 과학적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피동형이 아닌 능동형 위주의 문장 구성을 주문했다. 이는 수업의 수강생들이 목표 독자층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따라서 ‘박테리아에 의해’보다는 ‘박테리아가 당분을 분해한다.’는 구조로 옮기는 것이 좋다. 또한, 위 학생은 1)에서 ‘promote’의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한국어의 호응에 맞게 ‘충치를 유발하는’으로 잘 옮겼으나, 2)에서는 그러하지를 못 하여 ‘취약하다’로 그대로 옮기는 데에 그쳤다. 이에 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시화(visualize)하여 떠오르는 영상을 그대로 표현해보는 과업(task)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등의 다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필자가 담당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시한 번역과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번역브리프를 통해 텍스트 상황을 그렸고, 번역문제에 당면했을 때마다 자신이 진행한 사고의 흐름을 교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번역과정에 보다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 프로파일의 경우, 어떤 학생은 영상 번역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었고, 교직을 생각하거나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학생들에게도 학과의 선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번역수업보다 학생과의 소통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번역브리프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영어 강독 위주의 텍스트 문자를 있는 그대로만 옮기는 정적인 모습에서 특정한 텍스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번역상황을 그리면서 번역이 얼마나 다양하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학습을 역설하는 사회 구성주의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또한, 번역저널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번역가의 머리 속에는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을지를 직접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저널을 통해 이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번역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보다 개별 학생에 맞추어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 번역결과 중심의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나가는 말

학생프로파일,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에 관한 본 연구는, 학부에서의 번역교육이 과거에는 번역결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학생과의 소통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발했다. 특히, 학부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번역능력을 모두 함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번역결과가 아닌 번역 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번역능력의 하위능력별로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개별 수업에서는 과업(task) 중심으로 진행하여 하위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기술했다. 이를 위해 학생프로파일, 번역브리프, 번역저

널을 번역교육에 도입하여 교수자와 학생이 소통한 사례에 관해 소개했다.

학생프로필, 번역브리프, 번역저널의 도입은 교수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채널일 뿐이다. 그러나 과거의 번역결과 중심 번역교육에서처럼, 일부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도달해야하는 수준과 현재 자신의 수준 간의 간극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의 발전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무엇보다, 개별 학생에 맞추어 피드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 효과가 그만큼 높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학부 번역교육 현장에서 교수자-학생이 보다 많이 소통하고, 번역과중 중심 번역교육을 실현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 용 문 헌

- 남원준. 「Al Gore의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통역하기: 학생 통역 저널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4): forthcoming.
- 이향. 「번역능력이란 무엇인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한국통역번역학회, 2006): 177-93.
- 정연일. 「번역수업에 있어서 '번역브리프'의 역할」. 『통번역학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03): 171-86.
- Campbell, Stuart.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1998.
- Galán-Mañas, Anabel & Amparo Hurtado-Albir. "Blended Learning in Translator Training: Methodology and Results of an Empirical Validation."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4.2 (October 2010): 197-231.
- González-Davies, María. "Minding the Process, Improving the Product: Alternatives to Traditional Translator Training." *Training for the New Millennium*. Ed. Martha Tennent.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5, 67-82.
- Harvey, Keith. "Compensation and the Brief in a Non-literary Transla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edagogical Applications." *Target* 10.2 (October 1998): 267-90.
- House, Juliane. "Übersetzen im Fremdsprachenunterricht [Translat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gewandte Übersetzungswissenschaft [Applied Translation Studies]*. Ed. Sven-Olaf Poulsen and Wolfram Wilss. Århus: Wirtschaftsuniversität Århus, 1980. 7-17.
- Hurtado-Albir, Amparo. "Competence-based Curriculum Design for Train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1.2

- (October 2007): 163–95.
- Kelly, Dorothy.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Manchester: St. Jerome, 2005.
- Li, Defeng. “Teaching Business Translation: A Task-based Approach.”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7.1 (March 2013): 1–26.
- Murphy, Amanda C. “Incorporating Editing into the Training of English Language Students in the Era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7.2 (October 2013): 235–55.
- Nam, Won Jun. “Teaching Consecutive Interpreting at the Undergraduate Level: Application of Theory to a Performance-oriented Class.” 『영미연구』 28 (2013): 269–93.
- Newmark, Peter. “Some Notes on Translation and Translators.” *Incorporated Linguist* 8.4 (October 1969): 79–85.
- Nord, Christiane. “Text Analysis in Translator Training.”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Eds.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92. 39–48.
- Orlando, Marc. “Evaluation of Translations in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t the Crossroads between Theoretical, Professional and Pedagogical Practices.”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5.2 (October 2011): 293–308.
- Orozco, Mariana. “Building a Measuring Instrument for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in Trainee Translator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Ed. Christina Schäffner & Beverly Adab,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0. 199–214.
- Shih, Claire Y. “Learning from Writing Reflective Learning Journals in a Theory-based Translation Module: Students’ Perspectives.”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5.2 (October 2011): 309–24.
- Way, Catherine. “Systematic Assessment of Translator Competence: In

Search of Achilles' Heel."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 Issues, Methods and Debates (Continuum Studies in Translation)*. Ed. John Kearns, London/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2008. 88–103.

Zhong, Yong. "Teaching Translators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The Interpreter & Translator Trainer* 2.2 (October 2008): 203–20.

Abstract

Communicating with student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Analysis of student profiles, translation briefs, and translation journals for process-oriented translator education

Nam, Won Jun

The present study describes my experience of communicating with undergraduate students in my *Intro to T&I class* through the means of student profiles, translation briefs, and translation journal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rgues that the past pedagogical model of product-oriented translation teaching should be replaced or complemented by a more process-oriented approach. Students were asked to submit student profiles (language background, career aspirations, etc.) and translation briefs (text-in-situation), and translation journals so as to enable students to express the difficulties they faced when carrying out translation tasks as well as the various factors they considered. All of this helped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students, and customized feedback was able to be given.

The present study argues for a process-oriented approach since students need to continue their learning process, and thus acquire each sub-competence of translator competence well beyond graduation,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Key Words: Undergraduate Translator Education, Translation Journal, Life-time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Translation

Brief

학부 번역교육, 번역저널, 평생학습, 자기주도학습, 번역브리프

논문접수일: 2014.05.25

심사완료일: 2014.06.16

게재확정일: 2014.06.21

이름: 남 원 준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317호

이메일: wonjun_nam@daum.net